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여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청소년,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 유스 잼(Youth Jam)



▲ 유스잼 단체사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홀리네스 교단 청소년·청년 연합 캠프인 유스 잼이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유스 잼은 2004년에 시작되어 4년마다 열렸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스 잼을 위해서 저희가 속한 키키교구에서는 여러 번의 사전 모임과 기도 모임을 통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스 잼이 시작되는 날 태풍7호 란이 저희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가 기간과 겹쳐서 갑작스럽게 기차표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키키교구의 청소년, 청년들은 무사히 유스 잼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5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간사이 지역의 모든 철도와 항공기가 운행을 중단하였기에, 일찍 출발하여 유스 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모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299명의 청소년, 청년, 목회자들이 참석해 유스 잼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분과, 청년 분과로 나뉘어 집회가 이어졌고, 모두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유스 잼에서는 말씀 시작 전, 여러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장 and 학교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었고, 참가자들은 믿는 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직장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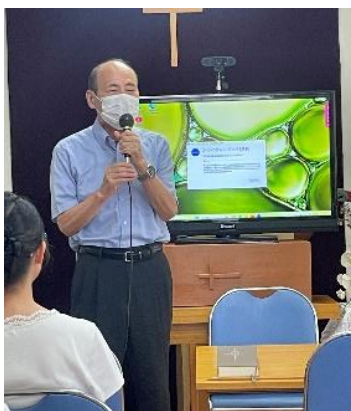
특히 마지막 날, 찬양 집회 때에는 일본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는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믿는 자가 1%도 되지 않는 일본을 위해’, ‘목회자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유스 잼이 끝나고, ‘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 그러니 실망치 말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자’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스 잼을 통해 일본의 청소년,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리리코 자매 ▲

타케모리상과의 예배



▲ 퇴원한 타케모리상의 인사

파상공으로 입원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타케모리상이 퇴원했습니다. 퇴원 한 뒤,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며 인사하는 타케모리상은 입원 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타케모리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타케모리상이 감사의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타케모리상은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심으로 회복 할 수 있었다며, 한국 교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도편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커피 클래스와 홀리네스 온라인 세미나

카코가와 교회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 찾아오신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카코가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커피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8월 12일에 1차 클래스를 열었고, 26일에 2차 클래스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커피 봉사를 할 때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카코가와 성도들은 지역 주민들을 커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주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며 나아가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커피클래스



▲ 홀리네스 온라인 세미나

또한 8월 20일 주일 오후, 홀리네스 온라인 세미나에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근현대선교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일본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 가운데,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임을 강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주변의 외국인들을 선교대상으로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반응해주셨습니다. 선교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선교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 일본 교회에 '선교'를 알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소식

8월 4일 생일을 맞이한 민하는 5살의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의 여름캠프를 통해 민하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식사시간의 기도도, 가정 예배 때에도, 주일 예배에서도 제법 의젓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황명아 선교사는 이번 학기 경희사이버대 일본어 학과에 휴학신청을 했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교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어 교실의 준비가 잘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깊이 알아보기 - '일본의 복날 ; 소의 날(土用の丑の日)'

일본의 여름도 많이 덥습니다. 가끔씩, 한국에서 복날에 먹던 삼계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일본의 복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복날은 토왕의 소의 날(土用の丑の日)라고 부릅니다. 토왕 (土用)은 오행에서 땅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절기로서, 입춘,입하,입추,입동 전 각 18일 동안입니다. 또한 소의 날은 12간지에서 기초한 날짜입니다. 토왕 기간에 소의 날이 겹치는 날을 소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여름을 난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소는 '우시(牛)'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날은 '우(う)'로 시작하는 이름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 장어덮밥(우나기동, うなぎ丼)



▲매실장아찌(우메보시, 梅干し)와 우동(うどん)

소의 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위장과 체력을 기르고 치질을 막는다고 하여 장어덮밥(우나기동)을 많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장과 체력을 기른다고 해서 소고기도 많이 먹으며, 체내의 열을 제거하고 수분을 보충한다고 해서 오이(우리, 瓜)도 많이 먹습니다. 또한 일본의 매실 장아찌인 우메보시(梅干し)와 우동(うどん)도 많이 먹습니다. 우메보시는 식욕을 증진하고, 갈증해소에 좋으며,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동은 소화를 촉진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무더운 복날에 많이 먹습니다.

물론 글자 '우'와 상관없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도 많이 먹고는 합니다. 소의 날이 다가오면 각종 음식점이나 마트에서는 장어덮밥의 사전 주문을 안내하는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유스 잼에 참석한 청년·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2.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가 되도록
3. 다양한 강의를 통해 일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4. 타케모리 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5. 가족의 건강을 위해
5. 9월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 후원안내

○ 연락처 :

이준호 : 080.4188.2604

카톡ID directed

황명아 : 080.7583.1855

카톡ID grace82gby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